

# CONTENTS

2009 겨울호 Vol. 15호

##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인

김태현

## 실무위원

박수미 · 김영택 · 마경희 · 안상수  
이미정 · 임희정 · 전기택 · 박복순

## 편집인

박수미

## 기획 및 편집

이경식

## 표지사진

김광숙(www.supil.co.kr)

## 디자인 및 인쇄

대한정보인쇄(주)

TEL. (02)2632-0416~8

젠더리뷰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원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002 권두언 | 김태현

## 기획특집

2010 여성분야 전망

004 2010년 여성 일자리 전망과 과제 | 김태홍

011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와 향후 과제 | 마경희

022 섹슈얼리티(Sexuality)와 여성 인권의 통합을 위한 과제 | 조영숙

## 이슈브리프

030 성평등 사회 실현이 저출산 극복의 지름길 | 박수미

036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 왜 문제이며 해법은 있는가? | 전광희

043 여성의 지역정치참여 | 오유석

053 여성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 김영택

060 다문화 뉴스 분석과 미디어의 역할 | 정의철

066 미디어 속의 젠더 코드 - 강한 여성, 약한 남자? | 정영희

## 국제리뷰

072 제 35차 유네스코 세계 총회 참가 후기 | 윤현주

079 G20 국가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 최윤정

## 연구노트

092 데이트 성폭행의 위험과 대응과제 | 이미정

099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 민무숙

## 여성정책동향

106 여성정책동향 (2009년 4/4분기) | 최윤정

111 2009 연구보고서 소개

115 2009 연구보고서 목록

## 상시안내정보

118 여성연구 · GSPR · 젠더리뷰 투고 안내

121 자료이용서비스 안내



## 김 태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올초부터 여성연예인 자살 사건을 비롯하여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온갖 사건으로 얼룩졌던 2009년을 뒤로하고 2010년 여성 분야를 전망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성 분야 역시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에서라면 이미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들과 새롭게 나타난 문제, 또 새롭게 부각될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난마처럼 얹혀 있다.

먼저 2010년 여성 일자리 분야를 전망해 보면 앞날이 여전히 밝지 않다. 경제위기로 여성 일자리가 급감했지만 내년에도 고용의 양적·질적 저하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성 일자리와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데 그 해결책의 하나가 바로 녹색성장의 주체로서 여성을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녹색일자리, 녹색생활환경, 녹색생활문화 창출에 여성이 주체로 나섬으로써 청년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년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의 외연 확장이 요구된다.

저출산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의 일자리 전망은 자연스럽게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이어진다. 2010년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저출산 사회의 타개책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도 더욱 드높아질 전망이다. 2010년에는 모성보호와 근로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휴가·휴직제도가 정착되고 정규직 파트타임 등 유연한 고용형태가 뿌리 내리며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9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아동성폭력 문제는 2010년에도 지속되어 ‘성’과 ‘폭력’을 매개로 인권과 안전에 대한 요구 역시 증폭할 것이다. 폭력 취약집단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완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은 여성정책의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제도가 안착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내년은 성인지 예산도입 2차년도로서 1차년도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1년도 예산서 작성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의 여성 관련 이슈들이 내년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면서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여성들의 고달픔이 우리 이웃의 문제이고 내 가족의 문제이고 또 바로 나의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또랑또랑한 눈빛에서 그 희망을 엿보게 된다.